

대한외과학회

합리적인 진료시스템, ‘개방병원’ 활성화 바란다

2006년도 전국 병원 전공의 모집에서도 외과계열의 지원은 저조하였다. 이와 같은 외과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외과의 부재라는 기형적 의료현실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정부나 의료이용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암환자의 급증은 물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의 대형 사고도 증가하여 외과의사들의 역할은 더욱 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응급환자는 일차적으로 외과의사의 진료와 구급소생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멀지않아 내 가족이 촌각을 다투고 있을 때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외과의사가 부족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배운 것을 보람 있게 실천할 수 있다면 외과를 택하겠다는 것이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행의료보험수가하에서는 수술실의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 외과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 80% 이상의 외과 전문의가 매년 외과개원을 포기하고 있고 연쇄현상으로 외과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수준 높은 외과진료와 외과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는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방병원제도란 지역사회에 있는 2, 3차 의료기관을 개원의에게 개방해 그 곳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원의는 개인의 진료실에서 진찰만 하고 더 필요한 조치는 계약된 병원의 좋은 시설과 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시설과 설비를 위하여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환자에게는 중복진료가 감소되고, 신속하고 연속적인 진료혜택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시설이 미비한 의원에서 진료받지 않고

좋은 병원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원의들은 대형 병원 의료진들과 새로운 의학지식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의료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 개원의들은 자신의 환자를 2,3차 병원에 입원 치료받게 함으로써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과계열의 개원의들은 좋은 수술실 환경과 경험이 많은 마취의사의 지원하에서 고난도의 수술까지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어 보람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진료부문 외에도 개방병원의 학회나 세미나 등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상호 협력적 진료체계는 더욱 더 확고히 구축될 것이다.

개방병원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원의에게 지불되는 기술료와 개방병원 이용료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낮은 의료수가는 개방병원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거대한 의료정책의 개발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은 일찍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원이며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는다. 의료이용자들과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백년대계로 하루 빨리 한국 실정에 맞는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외과부재로 인해 국민건강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험한 의료체계의 기현상을 방지하기를 바란다 ㉔



글 | 권경보 _ 대한외과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외과 교수